

사진기자의 단상

꽃밭 속 공양...마음은 극락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에 이어 부처님 오신 날도 월요일에 오면서 모처럼 연휴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12일은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걸린 색색의 연등이 5월의 바람에 잔잔히 흔들리던 1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에서 다정한 부녀를 만났습니다. 법회가 끝나 후 공양을 하고 있는 두 부녀는 사찰을 찾은 많은 사람들 틈에서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화단에 걸터앉았습니다. 작은 화단 위에 걸터앉은 몸이지만 두 부녀의 표정을 보니 마음만은 극락인 것 같습니다. 행여 딸아이가 체하기라고 할

까봐 조심조심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아버지와 볼 햇살처럼 눈부신 미소로 아버지를 보는 아이는 부처님의 자비로움처럼 따뜻함을 주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음이 부처" 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 자신이 있는 곳이 지옥이기도 하고 극락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연휴가 끝난 아쉬움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부처님, 그 부처님의 말씀처럼 세상도 사람들도 동글동글 아름다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최현배기자 choi@

오늘의 유머

▲유언

한 할아버지가 유언장의 공증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았다. "할아버지... 이 유언장에 따르면 돌아가신 후에 바다 한 가운데에 뿌려 달라고 하셨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묻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럴걸! 내 분명히 그렇게 썼지!" 변호사는 다시 한 번 물었다. "이유가 뭐니까? 왜 하필 바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러자 잠시 생각을 하던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마누라가 내가 죽으면 무덤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고 했거든! 어디 한 번 출수 있나 보자고!"

▲어떤 병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환자가 병실에 의사가 들어오자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만 알려 주세요."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이 병에 당신 이름이 붙을지도 모르겠네요..."

▲춤추는 오리

서커스 단장이 술집에 갔다. 단장은 그곳에서 뒤집어 놓은 냄비 위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오리를 보았다. 그것을 본 단장은 주인에게 사정을 해 오리를 사가지고 왔다. 그런데 냄비 위에 오리를 올려놓아도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며칠 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단장은 술집에 찾아가 주인에게 따졌다. "이 사기꾼! 날 속였군! 이놈의 오리 새끼가 발가락 하나도 풀지라거리질 않는 단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나 참... 냄비 밑에 촛불은 켜수?"

▲에디슨이 잘하는 것?

어느 집에 공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다. 하루는 화가 난 엄마가 아들을 앉혀두고 한마디 했다. "아니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니? 제발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해라!" 그러자 아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엄마는 에디슨도 몰라? 에디슨은 공부는 못해도 훌륭한 발명가가 됐어.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고!" 화가 난 엄마는 아들에게 소리쳤다.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지!"

▲그래서?

두 할머니가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바깥양반은 잘 계세요?" "지난 주에 죽었다우. 저녁에 막을 상추를 뜯으러 뒤뜰에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지 뭐유?" "저런... 정말 안돼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수?" 그러자 할머니가 덩덤한 얼굴로 대답했다. "뭘 어떡해, 갯잎 사다 먹었지."

▲어떤 공처가

공처가라고 소문이 자자한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걱정이 된 친구가 물었다. "이봐! 자네 왜 그래?" 그러자 그는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실은 내가 장인과 말다툼을 했거든. 그랬더니 아내가 나와 일주일 동안 말도 안하고 잠도 안잔다구 했거든!"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자네 환상 아내 바가지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나? 슬퍼할 이유가 뭐 있어. 오히려 기뻐하지 않아?"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오늘이 일주일 되는 날이야."

리빙 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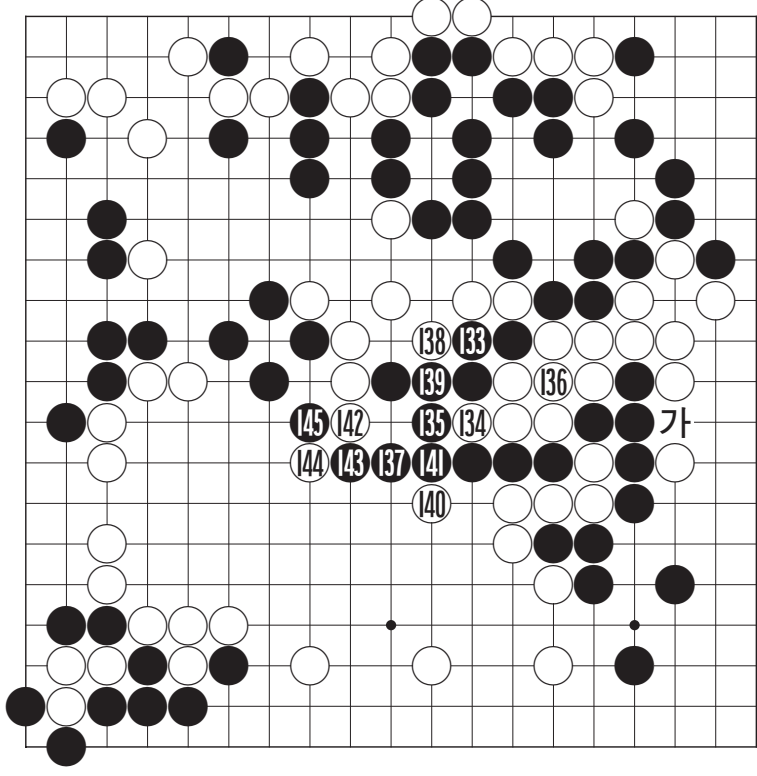
건강한 눈화장의 원칙 ②

▲눈병이 걸리면 쓰던 제품은 버려라

눈병에 걸리면 사용하던 화장품은 버리고, 눈 주변에 염증이 있을 때도 눈 화장을 하지 않는다. 오래된 마스카라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눈 화장품만 사용 립 라이너 등 다른 부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에 눈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입 등에 묻어 있는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눈 화장품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에 민감한 눈과 눈가 피부가 노출될 수 있다. ▲자극이 일어나면 사용 중단 메이크업 후 자극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자극이 계속되면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다. ▲성분 체크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색소를 포함한 화장품 성분을 꼼꼼히 확인한다. 화장품에 사용이 허가된 색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5월 13일(음 4월 9일 癸卯)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of May 13th.



회심의 강타 8보(133~145)

바둑은 유리한데 더욱 강하게 싸우고 있다.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중앙싸움에 모든 것을 던져넣고 있다. 흑 137까지 올인을 해버린 것이다. 수싸움에 확신이 없고서는 힘든 결정이다. 박성균 7단으로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일단 백 140까지 올인하면 다음 백 142로 늘어 최대한으로 백의 승리를 조여갔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 수로 145에 두어 보신에 급급하는 것은 우변에 '가'로 쥘리는 일격을 맞게 된다. 흑 145로 우지근 끊어버린 것이 심재욱 6단의 회심의 강타였다. 이때 백이 '참고도'의 1로 누는 것은 13개 지 비이라 안된다. 그렇다면 백에게 어떤 수단이 있는 것일까. <오규철 9단·본부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바둑리그, 한계임 2위 도약

경기 한계임이 KB국민은행 2008 한국바둑리그 2위로 올라섰다. 한국기원은 12일 "지난 11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3라운드에서 한계임이 울산 디아체를 3-2로 꺾었다"고 밝혔다. 한계임의 김주호 7단, 김성룡 9단, 이영구 7단이 각각 디아체의 김기용 4단, 최원용 5단, 이상훈 6단을 제압했다. 한편 광주 kixx는 17일부러 제일화재와 3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수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

A table with four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Englis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Each column contains a question, a list of possible answers, and a correct answer with its explanation.